

오늘 내일 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

# 예비 유치전 “여수 알려라”

여수시가 8일과 9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을 맞아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여수 알리기’에 나섰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폴 케네디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과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회원국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전세계에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2월로 예정된 BIE 회의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BIE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이번 행사는 일종의 유치 예비전인 셈이다. BIE 회원국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30여개국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 BIE 회원국 대표 30여명 참석

여수시와 시민단체들은 행사 며칠 전부터 시내 60여 곳에 한글과 영어 등으로 쓰인 ‘세계박람회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꽃밭과 길가, 도로, 집 앞 등을 청소하는 등 ‘청결한 도시’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마무리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도착하는 여수공항에도 시민 100여 명이 참석, 화동이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시민들이 마음속으로부터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공식 통역과는 별도로 20명의 자원봉사 통역요원을 선발, 행사기간 내내 대표단 결을 지키며 여수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행사 이틀째인 9일에는 헬기 4대에 대표단 전원을 태워 남해의 절경을 보여주고, 관광 컨테이너 부

두와 포스코를 시찰하도록 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 잘사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그러나 이번 행사에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인 폴란드와 모로코 대표도 참석한다는 점을 감안, 지나치게 뜸뜨이는 듯한 모습은 삼가고 심포지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심포지엄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98개 BIE회원국 대표를 비롯한 전세계에,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의 상황과 시민들의 열망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여수를 알릴으로써 올 연말 표결에서 반드시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들 “열기·열망 전하자” 한마음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30여 개 BIE회원국 대표를 비롯해 우지엔인 BIE총회의장과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 리니오 부르토메스 이탈리아 베니스대학 교수, 헤르클레스 하라람비드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해양경제물류센터 소장 등 BIE관계자와 해양관련 석학을 포함, 국내외 인사 270여명이 참여한다.  
8일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폴 케네디 교수의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또 9일에는 남해 힐튼리조트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지향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7일 이후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는 해외 인사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2012 박람회 한국 유치를 호소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與 연쇄탈당 다음은 누구냐?

##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행보

### 유선호 오늘, 이영호 8대 전후에

### 김동철·지병문·김성곤 의원 검토

의원은 실형을 잠시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 의원이 탈당을 통한 통합신당 창당 방향이라는 점에서 이 의원의 전당대회를 전후해 탈당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김동철, 지병문, 김성곤 의원 등은 일단 열린우리당내에서 대통합의 길을 찾자는 명분으로 잔류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 탈당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노 직계인 서갑원 의원과 당 사수와 입장에 가까운 강기정 의원은 당분간 탈당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문화부장관 시절의 바디야기 파문으로 여론을 잃은 바 있는 정동채 의원은 탈당 등 정치적 거취를 거론할 입장이 아니다.

한편 지난 6일 탈당한 23명의 의원들은 새로운 교섭단체 구성과 조직의 일개를 짜는데 주력하는 한편, 천정배 의원이 주축이 된 선도탈당 그룹과 외부 정치세력과 손을 잡는 의원확대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한길, 양형일 의원 등 선도탈당과 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거침 ‘통합신당 의원 모임’ 첫 회의를 갖고 교섭단체 등록을 포함한 향후 활동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노력하고 ▲주말 워크숍에서 조직의 구성과 통합신당 추진의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이 밝혔다.

한편, 탈당과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과는 별도의 흐름에서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문국현 유한길벌리 사장, 추미애 전 민주당 의원,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의 접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탈당 사태를 맞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7일 강원도 춘천 베어스타운 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강원도당 대의원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원칙이나 현실이나

## 與집단탈당 대응책 논의...절충점 모색 하기로

민주당이 7일 열린우리당 집단탈당 사태에 직면, 정계개편의 방향타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숨고르기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장상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위 1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탈당사태에 대한 대응전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잔류파 가운데 민주당 분당을 주도한 세력이 통합 국면을 주도하는 것을 옹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과 그렇다고 민주당

독자적으로 정계개편을 이끌어 나갈 역량은 부족하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선 것.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원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결국 문을 걸어 잠그고 독자생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현실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원칙을 무시하면 (중도개혁세력) 통합의 본뜻이 없어지게 된다”며 “맑은 고층을 토로하고 활발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향후 열린우리당의 추가탈당 사태 등을 지켜보며 독자생존론과 원칙없는 통합론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절충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변인은 “중도개혁 노선 및 철학의 공유를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중도개혁세력과의 연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내 재선그룹과 공신대회 재판을 열어놓고 정계개편 방향을 논의하되 탈당파와의 물밑 접촉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분당세력이나 참여정부 시절에 책임이 있는 자가 통합을 주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민주당이 문을 걸어 잠그는 식은 아니다”며 “이는 지금의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취지이자 쇄국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정치권 아직은 靜中動

## 與지방의원들 “일단은 지켜 보자” 동조 탈당 고민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이 이어지는 등 여권의 탈당행렬이 가시화되자 지역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

7일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염동연(광주 서구갑), 양형일(광주 동구), 주승용(전남 여수), 우윤근(광양·구례) 의원 등 4명. 여기에 유선호(장흥·영양) 의원이 8일 중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지방의원도 당원들은 아직까지 당 잔류 국회의원이 다수이고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당장 동조 탈당을 강행하겠다는 지방의원들은 극소수인 셈이다.

6일 현재까지 동조 탈당이 예상되는 지방의원은 광주 서구의회 K의원, 동구의회 P의원 정도. 하지만 이들도 당장 탈당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열린우리당 소속 지방의원도 당원들은 일단 당적을 유지한 채 전당대회와 통합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 진행 과정을 지켜볼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탈당한 염동연·양형일·우윤근 의원 등도 지역구 당원들에게 동조 탈당을 유도하기보다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형일 의원의 한 측근은 “앞으로 정계개편 파동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신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지방정치인의 입장이다. 이들은 자칫 탈당파들이 만들 통합신당 대열에 뒤늦게 참여할 경우 정치적 입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조탈당을 통해 세를 과시할 필요가 없는 상황여서 지역정계에서 탈당 도미노는 신당 창당 단계 모임을 찾아가는 상황에서야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b>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b></p> <p>1. 광주 서구 갑구: 799,000원</p> <p>2. 광주 동구: 770,000원</p> <p>3. 광주 남구: 399,000원</p> <p>4. 광주 북구: 850,000원</p> <p>5. 광주 서구 을구: 279,000원</p>	<p><b>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b></p> <p>1. 여수: 1,200,000원</p> <p>2. 구례: 1,500,000원</p> <p>3. 장흥: 1,400,000원</p> <p>4. 영광: 1,300,000원</p> <p>5. 순창: 1,200,000원</p>	<p><b>전국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 동향</b></p> <p>1. 서울 강남구: 1,800,000원</p> <p>2. 서울 서초구: 1,600,000원</p> <p>3. 서울 용산구: 1,400,000원</p> <p>4. 서울 마포구: 1,300,000원</p> <p>5. 서울 은평구: 1,200,000원</p>
--	--	---